

지역 **메아리**



완주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완주군이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16일 완주군,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12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관내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사회복지사 8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완주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3조 제 2항에 의거해 매년 8시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보건소, 남성 갱년기교실

완주군 보건소가 중·장년기 남성의 고민인 전립선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한의약간증진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완주군 보건소는 중·장년기 남성의 고민인 전립선 질환을 한의약간증진프로그램 '한의약 청춘 발달' 교실에서 남성 갱년기교실과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청춘 발달 교실은 평균 수명 증가와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질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기 남성의 전립선 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제시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 하태복) 주관으로 오는 19일 김제시장애인체육관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는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 일반시민 등 5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부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2부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음악교실팀 하모니카 공연과 김제시합창단의 시선공연으로 성대한 막을 열고 장애인 대표가 장애인 인권현장을 낭독할 예정이며, 모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각계각층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육지원예산 109억원 편성

김제시, 무상급식·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방학기간 아동급식 등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후천)가 미래 김제백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올해 교육지원예산을 10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초등부터 대학까지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업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제시는 우선적으로 관내 59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 면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및 방학기간 아동급식,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17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농생명마이스터고 명장육성 및

기숙형 고교 지원, 학교시설 개선사업과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5억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원어민 강사 배치 및 해외연수 지원, 한중 문화교류 지원 등에 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장학기금을 조성중인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는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 및 체육꿈나무 격려금, 과감한 장학금 지급, 지평선학당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해마다 15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서울장학숙 설립 예산 40억원을 편성해 수도권대학을 진학하는 지역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은 자치단체 존립과 직결되어 있다."면서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자립도가 14%에 불과한 김제시는 교육관련 예산과 지원을 점차 늘리는 등 지역의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공을 들이고 있으며, 그 결과 2007년 62%이던 관내 고교진학률이 2018년에는 72%로 상승했고, 중학교 성적 상위 10%이내 우수 학생들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역시 20%대에서 60%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내고장학교보내기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제=곽노태 기자

현대자동차, 'Fun 클래스' 참가자 모집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참가 비용 6만 원

현대자동차(주)가 전문 인스트럭터와 함께 운전의 즐거움과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해 배우는 '2018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모터스포츠 기초 입문 과정 'Fun 클래스'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공인 레이싱 스포츠로 현대자동차가 고객들에게 바른 운전법과 동시에 운전의 재미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일반인 대상 드라이빙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8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개설돼 매해 진행된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올해 커리큘럼은 ▲운전의 즐거움을 배우는 모터스포츠 기초 입문 과정 'Fun 클래스' ▲스포츠 드라이빙 중급 과정인 'Sport 클래스' ▲중급 과정인 'Sport+ 클래스' ▲레이스 입문을 위한 심화 과정인 'Race 클래스' 등 참가자의 수준에 맞춘 다양한 클래스로 운영된다. 특히 모터스포츠와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참가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스포츠 드라이빙에

더욱 초점을 맞춰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2018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상반기 Fun 클래스 교육은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공원 주차장(경기 과천시 소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비용은 인당 6만 원이다.

Fun 클래스는 이론 교육은 물론, 참가자들이 직접 실험 벨로스터와 아반떼 스포츠 차량을 운전해 ▲긴급제동 및 긴급회피 ▲저마찰로 주행 ▲원선회 주행 ▲슬라럼 주행 등의 다양한 현대 드라이빙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Fun 클래스 과정을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수료 인증서가 제공되며, 향후 상급 과정인 Sport, Sport+, Race 클래스까지 단계별 이수가 가능하게 된다.

서킷 스포츠 주행을 즐기는 중급 운전자를 위한 Sport+ 클래스는 상반기 중 5월 19일과 6월 9일에 인제스피드움에서 각각 총 두 번 개최될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추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 하반기 신청도 추후 접수

공지 예정)

018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의 Fun 클래스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 내 이벤트 페이지 및 현대자동차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hyundaidrivingacademy)를 통해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매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참가가 확정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운영 사무국에 이메일(hda_0930@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2018 현대 드라이빙 아카데미' FUN 클래스는 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경기도 과천시 소재 서울대공원으로 장소를 정했다."라며 "올해는 Sport+ 클래스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에 서킷 주행을 즐기는 고객들이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올바른 운전 문화와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

21일... 김제 광활초등학교서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가 오는 21일 김제 광활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는 전국 최고의 시설하우스 감자 주산단지인 광활에서 간척지와 해풍 등 천혜조건에서 자란 햇감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이다.

해마다 4월에 개최되어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지평선광활햇감자 축제는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알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김제시합창단의 봄꽃 노래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개막식의 문의 열고, 희망감자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명랑운동회와 감자밭가요제, 전주MBC FM도넛쇼 공개방송등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될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한다.

특히 박상철, 박주희, 김수찬, 오로라, 지혜, 진석등 가수들이 참여하여 이번 행사를 축하하고 행사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감자요리를 저렴한 가격에 시먹을수 있고, 햇감자도 시중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수 있어 많은 호응이 예상되며,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해 도자기, 압화, 한지, 천연염색등 다양한 체험과 요술포선 이벤트, 페이스페인팅 체험도 즐길수 있다.

채건석 광활면장에 따르면 "광활 햇감자 맛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매년 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행사장 아ולם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교통, 음식등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장기 읍면동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

김제시체육회에서는 읍면동 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활동의 정착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16회 김제시장기 읍면동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를 지난 13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제시 19개 읍면동의 65세 이상 어르신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리질기, 제기차기, 투호의 민속 종목과 전년도 처음으로 도입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관심을 받은 플로어컬링의 뉴스포츠 종목을 읍면동대항 조별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김제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김제중앙병원의 의료봉사 지원으로 안전한 행사로 치러졌고 푸짐한 경품추첨을 통해

19개 읍면동 어르신들께 골고루 선물도 전달하는 등 건강과 재미까지 잡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의 종합우승은 백산면이 종합1위를 차지하였으며, 성덕면이 2위, 백구면이 3위, 황산면·부량면이 공동4위, 광활면·축산면·청하면·진봉면이 공동 5위를 수상했다. 그밖에 장수상에는 요촌동의 강옥순(91.여)어르신과 교월동의 김기두(88)어르신이 각각 남녀부문에서 수상했다.

김제시체육회 조승곤 심임부회장은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청춘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가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